경제학짱박사의 노동경제학 기출 완전정복

20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노동경제학

【 제 2 문 】

수요독점기업의 임금·고용 결정과 최저임금의 효과 · 배점 25점

문제

어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수요독점(monopsony)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생산함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며,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고 가정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완전하게 차별하는 경우**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의 임금과 고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노동공급곡선(S)과 노동의 한계비용곡선(MCE)**을 그려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 (물음 1)의 '완전차별 시 균형임금(W^*)'과 '차별하지 않을 때 균형임금(W_M)' 사이[$W_M < ₩ < W^*$]에 설정하였다. 이때 **노동공급곡선(S)과 노동의 한계비용곡선(MCE)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기업의 임금과 고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Ⅰ. 출제 취지 · 중요도 · 난이도

◆ 출제 취지 및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노동시장의 수요독점(monopsony) 모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특히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 일반적 수요독점과 '임금을 완전하게 차별하는' 수요독점을 비교하여, 두 경우에 한계노동비용곡선(MCE)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결과 임금·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적절히 설정된 최저임금이 '경쟁시장과 정반대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핵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출제의 핵심 의도이다.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핵심 개념	내 용
노동수요곡선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_L)이다.
한계노동비용(MCE)	고용을 1단위 늘릴 때 추가되는 총노동비용이며, 차별 여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수요독점적 착취	VMP_L과 실제 지급임금의 차이로,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에서 발생한다.
완전차별 수요독점	근로자마다 유보임금만 지급하므로 MCE가 공급곡선과 일치한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수요독점에서는 적정 최저임금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중요도 및 난이도

중요도 ★★★★★ (5 / 5)　　**난이도** ★★★★☆ (상, 4 / 5)

수요독점은 노무사 노동경제학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주제이다. 차별·무차별 비교와 최저임금 효과까지 결합되어 응용 난이도가 높으므로, 그래프의 정확성과 논리 전개가 득점의 관건이다.

Ⅱ. 물음 (1) 상세해설 — 완전차별 vs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

▣ STEP 0 수요독점기업의 노동수요곡선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기업은 생산물 가격(P)의 수용자이다. 따라서 이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_L)와 일치한다. 또한 노동의 한계생산물(MP_L)이 체감하므로 VMP_L 곡선은 우하향한다.

$$VMP_L = P \times MP_L$$

📐 수요독점력은 '구매(고용)' 측면에서 발생한다

이 기업은 생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가격수용자이지만, 노동을 '구매'하는 시장에서는 유일한 수요자이다. 따라서 노동수요곡선 자체는 VMP_L로 동일하게 우하향하며, 수요독점력은 노동공급곡선 전체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 STEP 1 한계노동비용(MCE)곡선의 도출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기업이 고용을 늘리려면,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공급곡선을 선형으로 W = a + bL이라 하면, 총노동비용(TC)과 한계노동비용(MCE)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TC = W \cdot L = (a + bL)\,L = aL + bL^2$$

$$MCE = \frac{d(TC)}{dL} = a + 2bL$$

이때 MCE를 곱미분(product rule)으로 전개하면 추가비용의 구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MCE = \frac{d(W \cdot L)}{dL} = W \cdot 1 + L \cdot \frac{dW}{dL} = W + L\frac{dW}{dL}$$

MCE곡선이 공급곡선보다 두 배 가파른 이유

고용 1단위 추가의 비용은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W)'에 '기존 근로자 전체의 임금인상분($L \cdot dW/dL$)'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MCE는 항상 임금(W)보다 크다. 선형(우상향) 공급곡선의 경우 그 기울기가 정확히 공급곡선의 2배가 된다.

$$MCE = W + \frac{dW}{dL} \cdot L \; > \; W$$

[보강] 공급곡선 = 평균노동비용곡선(ACE)

총노동비용을 고용량으로 나눈 평균노동비용(ACE)은 곧 그 고용수준의 임금이며, 이는 노동공급곡선 S(L) 그 자체이다. 즉 '공급곡선 = 평균노동비용곡선'이다.

평균비용이 상승할 때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위에 있다는 미시경제학의 일반원리(MC > AC)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우상향 공급곡선에서 MCE는 항상 공급곡선(= ACE) 위에 위치한다.

$$ACE = \frac{TC_L}{L} = \frac{W(L) \cdot L}{L} = W(L) = S(L)$$

$$MCE - ACE = L\frac{dW}{dL} \; > \; 0 \implies MCE > ACE = S$$

▣ STEP 2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의 균형 (E_M)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한계노동비용과 한계수입(노동수요 = VMP_L)이 일치하는 MCE = VMP_L에서 결정된다. 이때 기업이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은 '그 고용수준에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최저임금', 즉 노동공급곡선상의 값 W_M이다. 임금을 MCE곡선이 아니라 '공급곡선'에서 읽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MCE = VMP_L \implies a + 2bL_M \; = \; VMP_L(L_M)$$

$$W_M \; = \; a + bL_M \;\; (\, < VMP_L(L_M) \,)$$

그 결과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_L)가 실제 지급임금(W_M)을 초과하며, 이 차이가 바로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stic exploitation)'이다.

$$VMP_L(L_M) - W_M > 0$$

📐 가장 흔한 실수 — 임금은 공급곡선에서 읽는다

균형고용 L_M은 MCE = VMP_L에서 구하지만, 균형임금은 그 고용수준에 대응하는 '공급곡선'의 높이(W_M)이다. MCE곡선이나 VMP_L곡선의 높이를 임금으로 읽으면 안 된다.

▣ STEP 3 완전차별 수요독점의 한계노동비용

임금을 완전하게 차별하는 경우, 기업은 각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유보임금(공급곡선의 높이)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추가로 한 단위를 더 고용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고용 1단위 추가의 비용'은 그 근로자의 유보임금뿐이므로, 한계노동비용곡선이 노동공급곡선 자체와 일치한다.

$$MCE = S = f(L) = a + bL$$

🔏 완전가격차별 독점과의 대응관계

이는 생산물시장의 완전가격차별 독점기업에서 한계수입(MR)이 수요곡선과 일치하는 것과 정확히 대응된다. 즉 '완전가격차별 독점 : MR = 수요곡선' ↔ '완전임금차별 수요독점 : MCE = 공급곡선'의 구조이다.

▣ STEP 4 완전차별 수요독점의 균형 (E^*)

완전차별 시에는 MCE가 공급곡선과 같으므로, 이윤극대화 조건 MCE = VMP_L은 곧 S = VMP_L이 된다. 따라서 균형고용 L^*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고용량과 동일하며, 마지막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W^*는 그 고용수준의 공급곡선 높이가 된다.

$$S = VMP_L \implies a + bL^* = VMP_L(L^*)$$

결과적으로 고용은 완전경쟁 수준으로 '효율적(사중손실 없음)'이지만, 근로자가 누려야 할 잉여(노동자잉여) 전액을 기업이 흡수한다. 즉 완전차별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 '완전차별의 균형임금 W^*'의 정확한 의미

완전차별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각 근로자에게 그의 유보임금(공급곡선의 높이)만 지급하므로, 임금은 근로자마다 다르고 마지막(한계) 근로자만 W^*를 받는다. 즉 W^*는 '단일 균형임금'이 아니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스케줄의 상한이며, 동시에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균형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완전차별이 무차별보다 임금이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는 '한계근로자의 임금(W^*)이 W_M보다 높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 완전차별하의 평균임금은 무차별 수요독점의 임금 W_M보다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

▣ STEP 5 수치 예시와 두 경우의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공급을 **S : W = 10 + L**, 노동수요를 **VMP_L : W = 70 − L** 로 가정한다(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다).

① 차별하지 않는 경우 : MCE = 10 + 2L 이므로 MCE = VMP_L에서 고용·임금이 결정된다.

$$10 + 2L = 70 - L \implies L_M = 20,\ W_M = 30$$

$$VMP_L(20) = 70 - 20 = 50 > W_M = 30$$

② 완전차별의 경우 : MCE = 공급곡선이므로 S = VMP_L에서 고용·임금이 결정된다.

$$10 + L = 70 - L \implies L^* = 30,\ W^* = 40$$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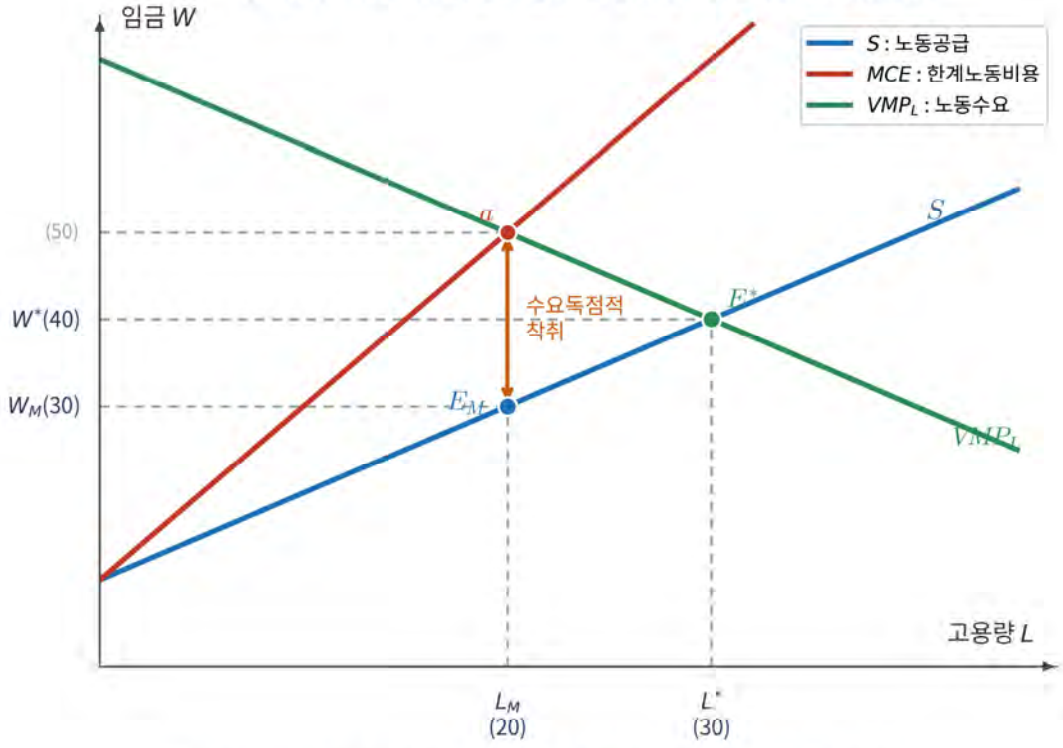
비교 항목	차별하지 않는 경우	완전하게 차별하는 경우
한계노동비용(MCE)	공급곡선보다 가파름 (a+2bL)	공급곡선과 일치 (a+bL)
고용량	L_M = 20 (과소고용)	L^* = 30 (경쟁 수준)
임금	W_M = 30 (공급곡선)	W^* = 40 (한계근로자)
노동자잉여·착취	수요독점적 착취 발생	노동자잉여 전액 기업이 흡수
효율성	과소고용·사중손실	고용은 효율적

[참고] 후생 관점 —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차별 없는 수요독점은 고용을 L_M(< L^*)에서 멈추므로, L_M부터 L^*까지의 구간에서 '노동의 가치(VMP_L)가 근로자의 유보임금(공급곡선 S)을 웃도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 고용'이 존재한다. 이 미실현 이득이 사중손실이며, 〈그림 1〉에서 VMP_L 곡선과 공급곡선 S 사이, L_M과 L^* 사이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완전차별 수요독점은 고용이 L^*까지 이루어져 이 삼각형이 사라지므로 사중손실이 0이고 배분상 효율적이다. 또한 적정 구간의 최저임금(W_M < W < W^*)은 고용을 늘려 이 사중손실을 축소한다.

〈그림 1〉 수요독점기업의 임금·고용 결정 : 완전차별 vs 차별없음



〈그림 1〉 수요독점기업의 임금·고용 결정 : 완전차별 vs 차별없음

Ⅲ. 물음 (2) 상세해설 — 최저임금이 차별없는 수요독점에 미치는 효과

▣ STEP 1 최저임금의 설정 구간

정부가 최저임금 W를 차별없는 균형임금 W_M과 완전차별 균형임금 W^* 사이[$W_M < W < W^*$]에 설정한다. 앞의 수치 예시에서는 $W_M = 30$, $W^* = 40$이므로, 예컨대 $W = 35$로 설정한 경우를 분석한다.

📐 이 문제의 핵심 직관 — 미리 새겨 둘 결론

경쟁시장에서 균형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이지만, 수요독점시장에서 적정 구간의 최저임금은 고용과 임금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한계노동비용(MCE)을 평탄하게 만들어, 수요독점기업의 고용억제 유인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 STEP 2 노동공급곡선의 변화 (S → S')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W 미만의 임금으로는 어떤 근로자도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공급곡선 S'는 임금 W 수준에서 수평이다가, 원래의 공급곡선이 W에 도달하는 고용량 L_1부터 다시 원래의 공급곡선을 따라간다.

$$10 + L_1 = \overline{W} = 35 \implies L_1 = 25$$

즉 S'는 'W 높이의 수평구간 + 원래 공급곡선'이 이어진 꺾인 형태이다. 수치 예시에서는 $10 + L_1 = 35$에서 $L_1 = 25$이다.

🔏 S'의 굴절은 '공급곡선의 이동'이 아니다

여기서 굴절된 S'는 근로자의 유보임금 분포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규제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유효 노동공급가격'이 W 아래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원래의 공급곡선 S는 그대로이고, 기업이 마주하는 공급 조건만 바뀐 것이다.

▣ STEP 3 한계노동비용곡선의 변화 (MCE → MCE')

최저임금 도입 후 한계노동비용곡선 MCE'는 세 구간으로 나뉜다. ① 고용이 L_1 이하인 구간에서는 임금이 W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추가고용의 비용도 W로 일정하다(수평). ② 고용이 L_1에 도달하는 순간, 임금이 다시 공급곡선을 따라 오르기 시작하므로 한계노동비용이 원래의 MCE 수준($a + 2bL_1$)까지 '수직으로 점프'한다(불연속). ③ 그 이후로는 다시 원래의 한계노동비용곡선($a + 2bL$)을 따른다.

$$MCE' = \overline{W} \ \ (L \le L_1), \quad MCE' = a + 2bL \ \ (L > L_1)$$

MCE'는 '수평 → 수직점프 → 원래 MCE'의 3구간

이 수직 점프 구간이 분석의 핵심이다. 점프는 ₩(= $S(L_1)$)에서 출발해 원래 MCE곡선의 값($a + 2bL_1$)에서 끝난다. 노동수요곡선(VMP_L)이 바로 이 수직 점프 구간을 통과하면, 이윤극대화 고용은 L_1에서, 임금은 ₩에서 결정된다. 수치 예시에서 점프 구간은 ₩ = 35부터 $a + 2bL_1$ = 60까지이다.

▣ STEP 4 새로운 균형 (E')과 임금·고용의 변화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하의 새 균형이 통상적인 'MCE = VMP_L의 매끄러운 등호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MCE'가 L_1에서 불연속적으로 점프하므로, 새 균형은 노동수요곡선 VMP_L이 이 수직 점프 구간을 '관통(가로지름)'하는 굴절점 L_1에서 결정된다. 즉 L_1 직전의 한계비용은 ₩이고 L_1 직후의 한계비용은 $a + 2bL_1$로 점프하며, 그 사이에 $VMP_L(L_1)$이 놓인다.

$$MCE^{-}(L_1) = \overline{W} < VMP_L(L_1) < MCE^{+}(L_1) = a + 2bL_1$$

$$\overline{W} \le VMP_L(L_1) \le a + 2bL_1 \;:\; 35 \le 45 \le 60$$

왜 기업은 정확히 L_1에서 멈추는가 — 부등식 논증

최저임금이 W_M < ₩ < W^* 구간에 있으므로 ₩ < W^*이고, 따라서 공급곡선 위에서 ₩에 대응하는 고용량은 L_1 < L^*이다. VMP_L은 우하향하므로 $VMP_L(L_1)$ > $VMP_L(L^*)$ = W^* > ₩가 성립한다. 즉 L_1까지는 VMP_L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고용을 늘릴 유인이 있고, L_1을 지나는 순간 한계비용이 VMP_L 위로 점프하여 더는 늘리지 않는다. 그 결과 고용은 정확히 L_1, 임금은 ₩로 결정된다.

$$\overline{W} < W^* \Rightarrow L_1 < L^* \Rightarrow VMP_L(L_1) > VMP_L(L^*) = W^* > \overline{W}$$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수요독점기업의 고용은 L_M에서 L_1으로 '증가'하고, 임금도 W_M에서 ₩로 '상승'한다. 즉 최저임금 도입으로 임금과 고용이 모두 늘어난다.

$$L_M = 20 \rightarrow L_1 = 25, \qquad W_M = 30 \rightarrow \overline{W} = 35$$

📐 착취는 줄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새 균형에서도 $VMP_L(L_1) > \overline{W}$이므로 수요독점적 착취가 잔존한다. 다만 그 크기는 줄어들며, 착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overline{W} = W^*$인 경계에서뿐이다. 수치 예시에서 착취는 $VMP_L(25) - \overline{W} = 45 - 35 = 10$이다.

$$VMP_L(L_1) - \overline{W} = 45 - 35 = 10 > 0$$

▣ STEP 5 경제적 직관과 한계

최저임금은 $\overline{W}$ 이하 구간에서 한계노동비용을 $\overline{W}$로 평탄하게 만든다. 그 결과 '고용을 늘리면 기존 근로자 임금까지 올려야 한다'는 수요독점기업의 고용억제 유인이 사라지고, 기업은 임금이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을 확대한다. 이것이 경쟁시장과 정반대로 고용이 늘어나는 이유이다. 또한 적정 구간($W_M < \overline{W} \le W^*$)에서는 새 균형 고용량 L_1이 그 임금에서 일하려는 노동공급량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도 미충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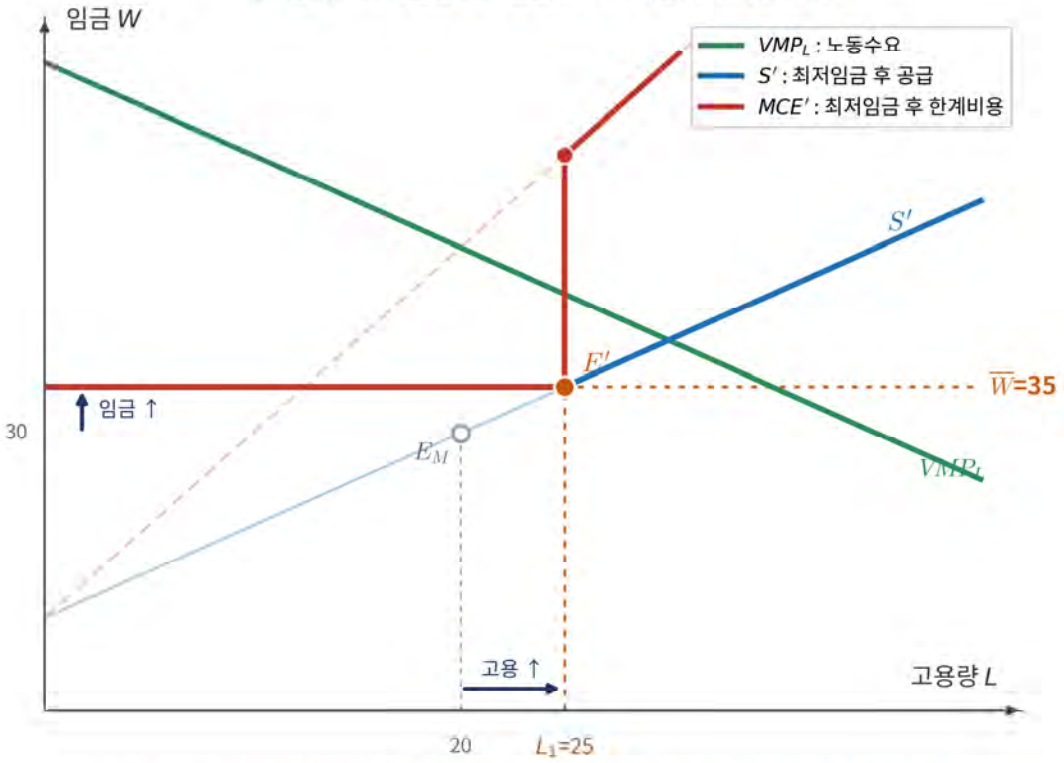
다만 최저임금을 완전차별 균형임금 W^*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더 이상 수직 점프 구간이 VMP_L을 관통하지 못하고, 고용은 노동수요곡선 $VMP_L = \overline{W}$을 따라 결정된다. 이때 고용량 $L_D = 70 - \overline{W}$은 경쟁고용 $L^* = 30$보다 작아진다. 즉 고용 증대 효과는 $\overline{W} = W^*$에서 최대가 되고, 그 이상에서는 경쟁수준보다 낮아지며, 그 임금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아져 비자발적 실업이 나타난다.

$$\overline{W} > W^* \Rightarrow L_D = 70 - \overline{W} < L^* = 30$$

📐 [정밀] '기존보다 고용 감소'는 조건부이다

$\overline{W} > W^*$이면 경쟁고용 L^*보다는 분명히 작아진다. 그러나 원래 수요독점 고용 L_M과 비교하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VMP_L(L_M)$보다 낮은 동안에는 여전히 고용이 L_M보다 많고, $VMP_L(L_M)$을 넘어설 때 비로소 L_M보다 줄어든다(수치 예시에서 $VMP_L(L_M) = VMP_L(20) = 50$).

〈그림 2〉 최저임금이 차별없는 수요독점에 미치는 효과



〈그림 2〉 최저임금이 차별없는 수요독점에 미치는 효과 (고용·임금 동시 증가)

📐 시장구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과는 정반대이다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균형 위의 최저임금은 초과공급(실업)과 고용감소를 부른다. 그러나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적정 구간의 최저임금은 고용과 임금을 동시에 늘린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시장구조'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Ⅳ. 최종 정답 정리

물음 (1) 모범답안 요지

• **차별하지 않는 경우 :** 고용은 MCE = VMP_L에서 결정되어 과소고용(L_M)이 되고, 임금은 그 고용수준의 공급곡선 높이(W_M)로 지급된다. 이때 $VMP_L > W_M$의 차이가 수요독점적 착취이며, 고용이 L^*에 못 미쳐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 **완전하게 차별하는 경우 :** MCE가 공급곡선과 일치하므로 $S = VMP_L$에서 고용이 결정되어 고용량(L^*)이 완전경쟁 수준과 같아져 배분상 효율적(사중손실 0)이다. 다만 마지막 근로자만 W^*를 받고 나머지는 각자의 유보임금만 받으므로, 노동자잉여 전액을 기업이 흡수한다.

• **비교 :** $L^* > L_M$ (완전차별의 고용이 더 많아 효율적). 한계근로자 임금은 $W^* > W_M$이나, W^*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단일임금이 아니라 임금 스케줄의 상한이다.

• **수치 예시 : $L_M = 20$, $W_M = 30$ (한계 착취 = $VMP_L - W_M = 50 - 30 = 20$) / $L^* = 30$, $W^* = 40$.**

물음 (2) 모범답안 요지

• **공급곡선의 변화 :** 최저임금 $\bar{W}$($W_M < \bar{W} < W^*$) 도입으로 공급곡선 S'는 $\bar{W}$에서 수평이다가 L_1부터 원래 공급곡선을 따른다(원래 공급곡선이 이동한 것은 아니다).

• **한계비용곡선의 변화 :** MCE'는 L_1까지 $\bar{W}$로 수평, L_1에서 원래 MCE($a + 2bL_1$)로 수직 점프, 그 이후 원래 MCE를 따르는 3구간 형태가 된다.

• **새로운 균형 :** 새 균형은 매끄러운 등호점이 아니라 VMP_L이 수직 점프 구간을 관통하는 굴절점 L_1이다 ($\bar{W} < VMP_L(L_1) < a + 2bL_1$). 고용은 L_1, 임금은 $\bar{W}$. ⇒ 고용과 임금이 '모두 증가'한다(경쟁시장과 정반대).

• **수치 예시 : 고용 20 → 25 증가, 임금 30 → 35 증가 (착취는 45 − 35 = 10으로 줄지만 잔존).**

V. 핵심사항 · 체크포인트

◆ 암기 공식 · 핵심 정리

구 분	반드시 암기할 내용
노동수요	생산물시장 완전경쟁 ⇒ 노동수요 = $VMP_L = P \cdot MP_L$
MCE (무차별)	선형공급 $W = a + bL$ ⇒ $MCE = a + 2bL$ (기울기 2배)
공급곡선 = 평균비용	$S(L) = ACE = TC_L / L = W(L)$ ⇒ MC > AC 원리로 MCE > S
무차별 균형	고용 : $MCE = VMP_L$ / 임금 : 공급곡선 W_M (← 가장 중요)
수요독점적 착취	$VMP_L(L_M) - W_M > 0$
완전차별 균형	MCE = 공급곡선 ⇒ S = VMP_L ⇒ L^* = 경쟁고용. W^*는 한계근로자 임금 (상한)
최저임금 후 MCE	$\bar{W}$ 수평 → L_1에서 수직 점프 → 원래 MCE (3구간)
최저임금하 균형	등호점 아님 — VMP_L이 MCE 수직점프를 관통하는 굴절점 L_1
최저임금 효과	적정구간($W_M < \bar{W} < W^*$) : 고용·임금 동시 증가 (경쟁시장과 반대)

◆ ⚠ 자주하는 실수

① 무차별 수요독점의 임금을 MCE곡선이나 VMP_L곡선이 아니라 반드시 '공급곡선'에서 읽어야 한다.

② 완전차별 시 MCE는 공급곡선(a + bL)과 같다. 이를 무차별의 MCE(a + 2bL)와 혼동하면 안 된다.

③ 고용량 대소관계는 $L^* > L_M$ 이다. 완전차별의 고용이 더 '많다(경쟁 수준)'는 점을 놓치기 쉽다.

④ 최저임금 그래프에서 MCE'의 '수평구간'과 '수직 점프'를 그리지 않고 곡선을 매끄럽게 그리면 감점된다.

⑤ 수요독점에서의 적정 최저임금은 고용을 '증가'시킨다. 경쟁시장 논리(고용감소)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⑥ 그래프에 축 이름(W, L), 곡선 이름(S, MCE, VMP_L), 균형점, 좌표를 빠짐없이 표기해야 한다.

⑦ 완전차별의 W^*를 '모든 근로자가 받는 단일임금'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W^*는 마지막(한계) 근로자의 임금이자 임금 스케줄의 상한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유보임금만 받는다.

⑧ 최저임금하 새 균형을 매끄러운 MCE = VMP_L 접점으로 그리면 안 된다. 실제로는 MCE가 L_1에서 불연속 점프하며, VMP_L이 그 수직 구간을 관통하는 굴절점에서 균형이 결정된다.

가점 포인트 — 경제학짱박사의 한 수

① '완전가격차별 독점의 MR = 수요곡선'과 '완전임금차별 수요독점의 MCE = 공급곡선'의 대응관계를 함께 언급하면 이해도가 돋보인다.

② 완전차별이 '배분상 효율(사중손실 = 0)'이지만 분배는 기업에 유리함을, 무차별이 '과소고용에 따른 사중손실'을 낳음을 함께 짚으면 가점 요인이다.

③ '공급곡선 = 평균노동비용곡선(ACE)'이고 '평균이 오를 때 한계가 평균 위에 있다(MC > AC)'는 미시원리로 MCE > S를 설명하면 깊이가 돋보인다.

④ 최저임금하 균형을 'MCE 수직점프가 VMP_L을 관통하는 굴절점'의 부등식($W < VMP_L(L_1) < a + 2bL_1$)으로 논증하면 만점 답안에 가깝다.

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시장구조에 의존'함을 강조하고, $W = W^*$에서 고용 증대가 최대임을 덧붙이면 완성도가 높다.

📌 참고 — 학술 출처와 현실 적용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stic exploitation)'는 Joan Robinson의 『불완전경쟁의 경제학』(1933)에서 도입된 가치중립적 학술 용어이다.

일부 실증연구(예 : Card & Krueger, 1994)와 최근의 노동시장 집중도(labor market concentration) 연구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독점적 요소가 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그 결과는 산업·지역·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은 피한다.

VI. 출제자 관점 채점표

실제 채점 기준에 따라 핵심 키워드와 그래프 표현 여부를 중심으로 배점한다. 결론만 맞고 도출 과정·그래프가 누락되면 부분점수만 인정된다.

【 물음 (1) · 15점 】

채점 항목	배점	세부 기준
노동수요 = VMP_L (생산물시장 완전경쟁)	**2점**	VMP_L 우하향 서술
MCE 도출 및 MCE = a + 2bL	**3점**	곱미분·기울기 2배 / S = ACE
무차별 균형 : 고용 L_M, 임금 W_M 착취	**3점**	임금=공급곡선
완전차별 : MCE = 공급곡선 논리	**3점**	유보임금·효율(DWL 0)
완전차별 균형 L^*, W^* ($L^* > L_M$)	**2점**	W^*=한계근로자 임금
그래프(S·MCE·VMP_L·균형점) 정확성	**2점**	축·곡선명 표기
소 계	**15점**	

【 물음 (2) · 10점 】

채점 항목	배점	세부 기준
최저임금 설정구간 ($W_M < W < W'$) 이해	**1점**	구간 명시
새 공급곡선 S′ : W 수평구간 + 원공급	**2점**	꺾인 형태
새 MCE′ : 수평 → 수직 점프 → 원 MCE	**3점**	3구간·불연속
새 균형 : 굴절점에서 고용·임금 동시 증가	**3점**	관통·부등식 논증
그래프(S′·MCE′·균형 변화) 정확성	**1점**	변화 표시
소 계	**10점**	

총 배 점 25점